



크리테오, IDC 기준 2017년 전세계 애드테크 시장 1위

- IDC 보고서 기준 점유율 7.4% 기록하며 전 세계 1위 애드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
- 리타게팅 광고 기반에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으로 확장하며 애드테크 시장 리더로 성장

[크리테오 보도자료=2018.10.10] 오픈 인터넷 기반 광고 플랫폼 기업 크리테오(나스닥: CRTO)는 시장조사기관 IDC 기준 2017년 전 세계 애드테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DC가 광고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 발간한 첫 보고서인 '2017년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활발한 인수합병(M&A) 속, 여전히 분할된 시장(2018년 9월)'에 따르면, 크리테오는 전 세계 애드테크 시장에서 점유율 7.4%로 1위를 차지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광고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6년 92억 달러에서 2017년 1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또한 광고 지출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과 광고 자동화 추세에 힘입어, 전체 광고 매출에서 애드테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7%에서 2022년 7.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전통적인 TV 광고를 디지털 비디오 광고, 특히 커넥티드 TV 광고로 전환하면서 자동화 기술이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리 스피لمان(Mollie Spilman) 크리테오 COO(Chief Operating Officer)는 "크리테오는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브랜드와 리테일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크리테오는 업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객들을 새로운 커머스 마케팅 시대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DC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프로그램 부사장인 카스텐 웨이드(Karsten Weide)는 "크리테오는 IDC가 처음으로 실시한 광고 기술 업체에 대한 분석에서 업계 1위로 조사됐다"라며 "이는 크리테오가 리타게팅 분야에서 지난 13년간 다져온 굳건한 입지에 따른 것으로, 이제 크리테오는 브랜드와 퍼블리셔 모두를 위한 엔드 투 엔드 서비스 체계를 갖춘 업체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했다.

크리테오는 AI 혁신과 같은 기술 발전에 대한 로드맵과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광고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리테오는 리테일러와 브랜드가 구매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수한 고객 통찰력과 기술,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디지털 광고 에코시스템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중립성, 투명성, 포괄성을 지향하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제공한다. 2,700명의 크리테오 직원들은 크리테오의 탁월한 머신러닝과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전 세계 18,000개 고객사들과 수 천 개 프리미엄 매체사들이 모든 채널에서 효과적인 광고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고객에게 더 나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크리테오 홈페이지(www.crite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